

호주의 농업 및 농식품 교역 현황*

문한필·정대희

1. 호주의 농업 여건 및 주요 농성

1) 농업 여건

호주는 세계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생산국이자 농식품 수출국이다.

호주는 열대우림 기후인 북부와 건조한 사막지대인 중서부, 설원의 남부 고산지대를 제외하고는 해안의 아열대와 온대 기후지역을 중심으로 넓은 목초지와 농경지가 분포되어 있다. 반면 호주 대륙은 가장 오래되고 비옥도가 낮은 토양을 가지고 있다. 절반 이상의 토지가 사막 또는 흔히 '아웃백(outback)'으로 알려진 반 건조 토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는 세계 농업에서 주요 생산국이자 농식품 수출국으로, 상당한 규모의 농식품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면적의 절반 남짓한 41,700만ha가 농지로 분류되며, 이 중 85% 이상이 목초지이고, 11% 정도만이 밀과 쌀을 포함한 곡물, 유채, 설탕, 면화 등의 작물재배에 이용되고 있다(2009년 기준, FAO). 호주의 농경지 면적은 4,378만ha로 우리나라(175만ha)에 비하여 무려 25배가 넓으며, 최근 경지면적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¹⁾ 호주의 농경지는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약 1천만ha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 본 내용은 호주의 농업 및 교역현황을 바탕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한필 부연구위원과 정대희 연구원이 작성하였다(hanpil@krei.re.kr, 02-3299-4259, dhchung@krei.re.kr, 02-3299-4297).

1) 우리나라는 경지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17.9%임에 반해 호주는 5.8% 수준이다(2009년).

최근에는 거듭되는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해 농경지의 황폐화, 유실 등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수원지도 같은 기간 동안 20만ha에서 30만ha로 증가하였지만 농경지의 규모에 비해 수원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물 부족은 호주 전체 산업의 주요한 제한 요인이며, 물 소비 면에서 농업의 점유율은 54%(2009년)로 높은 편이다.

호주의 농가인구는 2009년에 242만 4천명으로 우리나라의 농가인구 183만 7천명(2009년 기준)과 비교하면 약 1.3배 정도 많다. 호주의 농가인구는 2000년 이후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11% 수준의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함께 영농의 규모화도 진행되고 있다. 대규모의 소수 상업농에 생산이 집중되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도 다수 존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호주 농업에 가장 큰 위협은 기후변화로 최근 호주에서 가뭄의 빈도와 정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2010년 말에는 호주 동부의 퀸즈랜드 지역에 대홍수²⁾가 발생하여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었다. 전체 면적의 80%가 연중 강수량이 600mm 이하이고, 지역별 강수량은 매년 크게 변동하고 있다. 심각한 가뭄을 겪는 지역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남서부 지역은 1960대 후반 이후 강수량이 약 50% 감소하였다. 호주 대륙에서 심각한 자연재해의 빈번한 발생은 지구온난화 때문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호주의 농산물 생산은 2010년 11월 이후의 불리한 기후 상황에 의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퀸즈랜드 대홍수로 인해 과일과 야채, 면화, 수수 그리고 겨울 작물들의 생산 감소액이 최소 5~6억 호주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면화의 최대 손실액은 약 1.5억 호주달러, 과일과 야채의 생산 감소액은 2.25억 호주달러로 각각 추정된다³⁾. 상대적으로 축산분야의 피해는 적은 편이다. 단, 수송 및 우유 수집의 어려움과 사료 저장을 포함한 기반시설의 손상 등이 축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낙농업에서도 홍수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유 생산량이 감소되거나 가축 질병의 발생이 증가될 수 있다. 대홍수가 호주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최근 국제가격의 증가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뭄이나 홍수로 인한 농업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는 호주 농업인들에게 가장 큰 위험 요소이다. 따라서 호주 농정에서는 수자원 관리가 중대한 문제이다. 수자원에 대한 연구·개발 지출은 관련 산업에 부과하거나 연방 예산을 통해 모아진다. 연방

2) 37년만의 대홍수로 인해 퀸즈랜드 지역의 4분의 3, 약 40 개의 도시가 홍수 피해를 입었으며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수 십명의 사망했고, 수 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호주 GDP 약 1%에 해당하는 손실(A\$ 60억)이 발생했다고 보도되었다. 물에 잠긴 자동차와 부동산, 공장, 농장, 가게 등의 자산들을 포함하면 그 손해액은 두 배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아주경제 2011.01.17.).

3) 또한, 2011년 2월에 퀸즈랜드 북부의 바나나와 설탕 생산농가는 열대성 저기압 Yasi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다. Yasi에 의해 영향을 받은 이 지역의 농업 생산액은 약 3억 호주달러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호주의 개별농가 및 전체 농업부분은 자연재해에 더 영향을 자주 받기 때문에 단수 및 가격 변동성이 크다.

과 주 정부는 가뭄과 홍수와 같은 예외적인 재난 상황의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과거에는 마케팅 보드가 모든 생산자에게 동일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 위험을 공동 관리하였지만, 현재는 농산물 유통 체계와 관련된 규제 완화(철폐)로 생산자는 스스로 가격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 호주 농업인은 생산물을 세계시장에 주로 수출하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 환율변동, 시장접근 제한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이 중에서 가격 변동이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호주의 개별농가 및 전체 농업부분은 가뭄과 같은 재해에 더 영향을 자주 받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에 비해 작물(밀, 보리, 유지작물)의 단수 및 가격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호주의 주요 농업지표 추이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인구(천명)(A)	19,153	20,395	20,698	21,073	21,432	21,875
농가인구(천명)(B)	2,452	2,407	2,405	2,411	2,413	2,424
농업종사자수(천명)	481	380	378	377	374	371
농가인구비중(B/A)(%)	12.8	11.8	11.6	11.4	11.3	11.1
농경지(천ha)(D)	47,600	49,742	48,065	44,530	44,374	43,785
농경지비중(D/C)(%)	6.2	6.5	6.3	5.8	5.8	5.7
농업GDP(억 US\$)	146	230	232	206	260	231
농업GDP비중(%)	3.5	3.3	3.1	2.4	2.5	2.5
농업총생산액(억 A\$)	348	387	359	412	448	423
PSE(억 A\$)	12	15	17	22	19	12
%PSE(%)	3.3	3.7	4.5	5.0	4.0	2.7
농식품 수출액(억 A\$)	217	224	237	212	255	254
농식품 수입액(억 A\$)	52	72	82	92	106	110
농식품 교역수지(억 A\$)	165	151	155	119	149	144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World Bank (<http://www.worldbank.org>),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RS database (<http://www.dfat.gov.au>), OECD PSE database (<http://www.oecd.org>).

2) 호주 농정 개요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시장가격지지 수단은 현재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호주의 농업부분은 시장 지향적으로 국내외의 가격차이가 거의 없으며, 농산물에 대한 정부의 시장가격지지 수단⁴⁾은 1990년대 후반에 대부분 폐지되어 현재는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규제완화나 세금감면과 더불어 정부의 농업에 대한 지원은 예산재정 프로그램(budget-financed programmes)에 의해 이루어지며, 이는 주로 구조 개선, 자연자원 및 환경관리, R&D 등에 사용되고 있다.

OECD의 PSE(Producer Support Estimate, 농업생산자지지추정치)⁵⁾ 지표에 의하면,

4) 1986~1988년 이래로 농업 생산과 무역을 왜곡시키는 정책들을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밀에 대한 가격지지는 1998년까지,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가격지지는 1997년까지 각각 유지된 다음 철회되었다. 이에 앞서 양모(1986~1997), 설탕(1986~1996), 계란(1986~1995) 등에 대한 가격지지 또한 폐지되었다.

5) OECD는 회원국들의 농업지원 수준을 산출하고 상호 비교하기 위하여 PSE를 개발·도입하였으며

호주는 전체 회원국 중에서 뉴질랜드 다음으로 가장 농업지지 수준이 낮다. 생산자 총 수취액 중 농업지원액(일반서비스 재정지출 제외) 비중을 나타내는 %PSE는 호주의 경우 2% 수준으로 45%인 우리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2010년). 정부의 재정지출은 기반시설 설비, 연구개발, 검역 등 정부의 일반 서비스에 대한 지원에 가장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일반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투입재 사용을 억제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정책수단의 재정지출 비중이 높다. 여기에는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예외적인 재난상황(Exceptional Circumstance; EC)이 발생할 경우에 농업경영체에 지원되는 이자율 보조가 포함된다. 2007년에는 기록적인 가뭄피해에 대한 농가의 이자율 보조금으로 가장 큰 규모인 6억 8,139만 호주달러가 지출되었으며, 이후 최근 3년 동안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생산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과거의 고정된 면적, 사육두수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직접지불의 규모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생산연계지불에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농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재난피해경감지불(EC Relief Payment; ECRP)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2 호주의 농업보조 추이

단위: 백만 호주달러(Mil. A\$), %

	2007	2008	2009	2010(p)
농업 총생산액(농가기준)	41,206	44,812	42,304	45,607
생산자지지추정치(PSE)	2,153	1,856	1,188	1,038
% PSE	5.0	4.0	2.7	2.3
산출물에 대한 지지	0 (0.0)	1 (0.0)	2 (0.1)	8 (0.4)
- 시장가격지지(MPS)	0	1	2	8
- 생산량 기준 지불	0	0	0	0
투입재 억제 기준 지불	1,119 (33.3)	863 (31.6)	606 (30.2)	557 (29.3)
- 예외적 재난시 이자율 보조	681	506	220	163
- 고정투입재 사용억제 지불	110	110	116	113
- 농가 서비스 기준 지불	327	248	270	281
생산 연계 지불	36 (1.1)	115 (4.2)	110 (5.5)	76 (4.0)
생산 비연계 지불	979 (29.1)	860 (31.5)	445 (22.2)	374 (19.7)
휴경 지원	19	18	24	24

1982년부터 매년 회원국별로 산출하고 있다.

- PSE = 시장가격지지(MPS) + 재정지출(일반 서비스 제외)

* 시장가격지지 총액 = (국내생산자가격 - 국제참조가격) × 총 생산량

- %PSE = PSE/생산자 총수취액

* 생산자 총수취액 = 총생산액+ 재정지출(일반 서비스 제외)

: 국가별로 시장가격지지 총액 계산에 포함되는 10개의 주요 품목(MPS 품목)이 있으며,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원수준을 가정하여 전체 MPS를 산출한다.

	(0,6)	(0,7)	(1,2)	(1,3)
일반 서비스	1,210	872	823	867
	(36,0)	(32,0)	(41,0)	(45,7)
- R&D	632	584	619	617
- 농업 학교	0	5	5	5
- 검역·검사 서비스	87	95	95	98
- 농업 인프라	479	177	94	137
- 유통·홍보	13	12	10	10
- 공공재고	0	0	0	0
농업보조 수준(정부재정지출)	3,363	2,728	2,009	1,898
	(100,0)	(100,0)	(100,0)	(100,0)

자료: OECD, PSE/CSE database, 2011.

‘호주의 농업 미래’는 호주 정부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계획이다.

호주 정부는 농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이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여건에 직면하고 있고, 광범위한 충격에 노출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농업의 경우 강수량의 변화와 같은 자연적 충격과 농업구조·인구변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인식 변화와 같은 사회적인 충격, 생산성 수준의 변화와 같은 경제적인 충격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호주 농정의 주된 목표는 농업 부문이 기후변화의 충격에 적응하고, 이를 조절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며, 산업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호주 정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 보전(Caring for our country)’ 계획을 2009년에 수립하였다. 이밖에도 가뭄과 가뭄피해에 대한 기후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인 ‘가뭄정책의 자연적 검토(National Review of Drought Policy)’를 수행하였다.

‘호주의 농업 미래(Australia's Farming Future)’는 호주 정부의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계획(climate change initiative)이다.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해 주요 생산자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2008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4년간 기금이 제공된다. ‘국가 보전(Caring for our country)’ 계획은 기존의 토양, 관목, 강의 보전과 관리를 담당할 ‘National Heritage Trust’ 프로그램을 대체·확대한 것으로, 호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식품과 섬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농민, 토지 관리자 등을 지원한다.

6) ‘기후변화 연구 프로그램(Climate Change Research Program)’은 관련 연구 자금을 제공하고 농가서비스 관련 활동의 시연을 지원한다. ‘FarmReady’는 산업과 주요 생산자들이 기후 변화의 충격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과 전략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Climate Change Adjustment Program)’은 기후변화의 충격을 관리하는데 따른 농민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는다. 농업 경영분석과 재정평가 그리고 컨설팅 및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스스로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재정상황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것을 지원한다. 탈농 보조(Re-establishment assistance)는 농장 매각을 통해 비농업 분야로 전환하려는 농가를 지원한다. ‘전환기적 소득지지(Transitional income support)’는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과 연결되고 단기 소득지지와 농민들의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한 컨설팅과 훈련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네트워크와 능력 향상(Community Networks and Capacity Building)’은 여성, 어린이, 호주 원주민, 이주민 등을 타깃 그룹의 리더십과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호주의 위험관리 체계는 농가에 의한 위험관리⁷⁾라는 ‘자립 원칙(self-reliance principal)’과 예외적 상황(EC) 하에서의 정부지원에 기초하고 있다. 정부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훈련 프로그램 제공, 농가현금보유를 위한 세금 인센티브, 연구개발 등을 통해 농가가 가뭄에 대비하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편, EC 프로그램은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는 일종의 사회 안정망이다⁸⁾. 보험 및 선물시장과 같은 위험관리시장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으며, 마케팅 보드를 통한 가격 풀링(pooling) 시스템이 폐지되어 농가가 가격위험을 관리해야 할 책임은 증가하였다.

호주의 위험관리 체계는 ‘자립 원칙’과 정부지원에 기초하고 있다.

표 3 호주의 주요 위험관리 전략

목적\주체	농가 및 지역사회	시 장	정 부
위험감소 (risk reduc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보전 영농기술의 적용 . 관개 .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 권리(Water right) 거래 . 바이오 안전성 국경방역 (Bio-security border measures) . 훈련 프로그램
위험완화 (risk mitig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관리 . 작물/축산물 다각화 . 비축 관리 . 비농업 고용 및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물 및 가축 보험 . 선도계약 및 선물시장을 통한 가격 헤징 . 환율헤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관리 예금 계획 . 동식물 질병발생 긴급 대응 . EC 이자율 보조(ECIRS)
위험극복 (risk cop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C 경감 지불(ECRP) . 국가 재해 경감 및 회복 계획

자료: OECD, "Thematic reviews on risk management: Australia" TAD Working paper, 2010.

호주의 농업부문 위험관리 수단 및 전략은 목적에 따라 ‘위험감소(위험 발생 가능성 감소 전략)’, ‘위험완화(피해의 크기 감소)’, ‘위험극복(위험영향 감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행동 주체에 따라, 농가 및 지역사회, 시장, 정부로 나눌 수 있다. 제약적 성격(낮은 확률 및 큰 피해)을 가지는 위험은 주로 정부 정책 수단을 통해 관리되지만, 보통 위험(낮은 확률 및 작은 피해)은 주로 농가 단위에서 관리되고, 중간 위험(중간 정도 확률 및 중간 정도 피해)은 시장 수단을 통해 관리되는 체계

- 7) 농가는 가뭄관리전략으로 다양한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농가관리 및 운영비용 절감, 개인지출 절감, 비농업 소득증대, 농업 및 비농업 자산매매, 신규융자 취득, 현금자산 이용 등의 다양한 재정전략이 있으며, 작물 선택의 신속한 결정, 다른 종류의 작물 선택, 물 배정량(water allocation)의 추가구입, 가축과 사료의 재고관리가 중요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경영전략이다. 한편, 농외소득의 확대는 농가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관리 전략이다. 호주의 경우 비농업 소득은 농가소득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 8) 호주정부는 제약적 위험관리수단으로 ‘국가재해경감과 회복계획(National Disaster Relief and Recovery Arrangement)’과 ‘국가가뭄정책(National Drought Policy; NDP)’을 수립하였으며, 예외적 상황(EC)으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농가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감지불(EC Relief Payment; ECRP)’, 예외적 상황으로 인해 재정적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존가능한 농업경영체를 지원하는 ‘이자율보조(EC Interest Rate Subsidy; ECIRS)’, 탈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퇴출패키지(EU Exit Package)’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호주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교역대상국에 기술적, 운영적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는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적극적인 무역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무역협상인 DDA에서 호주는 농산물의 관세인하와 비관세장벽의 해소를 강하게 주장하여 왔다. 또한 호주는 다수의 양자간, 다자간 지역무역협정을 체결 및 추진하고 있다. 호주는 뉴질랜드와 1983년, 싱가포르와 2003년, 미국과 2005년, 태국과 2005년, 칠레와 2009년에 각각 FTA를 체결하였다. 2010년에는 뉴질랜드와 함께 ASEAN과 포괄적인 FTA(AANZFTA: ASEAN Free Trade Area)를 체결하였다. 또한, 호주는 AANZFTA와는 별도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와 양자간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도 현재 우리나라, 중국, 일본, 걸프협력회의(GCC)와 양자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중에 있다. 인도와의 FTA는 공동연구를 착수한 상태이다. 한편, 2008년 11월에 호주 정부는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동반자 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을 위한 협상에 참석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이 협상은 2010년 3월에 호주 멜버른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 TPP 협상의 참가국은 호주, 브루나이, 칠레,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페루, 미국 그리고 베트남이다. TPP는 2006년에 발효된 부루나이와 칠레, 뉴질랜드, 싱가포르 사이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파트너십 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을 토대로 미국과 페루 등을 포함하여 확대·강화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다. 2009년 8월에 호주는 태평양 도서국가들⁹⁾과도 PACER Plus로 알려진 지역무역협정에 착수하였다.

호주는 교역상대국인 개도국에 다양한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검역 실무,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SPS) 의무의 실행, 바이오안전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동물복지, 무역정책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 활동의 대부분은 해외개발원조(ODA: Overseas Development Assistance) 차원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국제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교역대상국의 농업, 임업, 수산업, 식품산업에 대한 기술적, 운영적 역량 개발을 도모하고 있다.

2. 호주의 농산물 수입 및 교역

1) 농산물 수입

2009년 호주의 농수산업 생산액은 367억 호주달러에 달한다. 농업 생산액은 육류가 가장 크며, 그 다음으로 곡물, 원예(과일·채소), 낙농 순서를 보이고 있다.

농업 종사자의 경우 곡물과 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 농장이 차지하는 비

9) 여기에는 쿡 아일랜드, 미크로네시아, 키리바시, 나우루, 뉴질랜드, 니우에 섬, 팔라우, 파푸아뉴기니, 마셜제도, 사모아, 솔로몬 제도, 통가, Tuvalu and Vanuatu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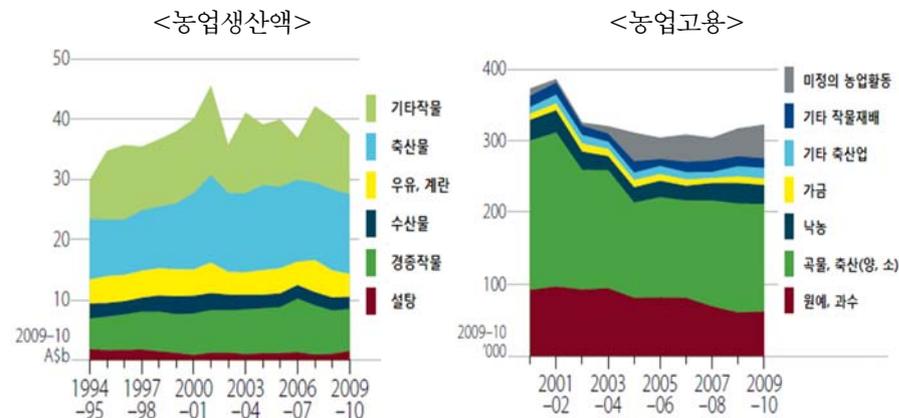
농업 종사자는 곡물과 축산을 동시에 실시하는 대규모 농장과 원예부문에서 많은 농업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중이 가장 높으며, 원예가 두 번째로 많은 농업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호주 동부에서 반복되는 가뭄으로 인해 곡물과 축산, 원예 등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광업 부문에서 증가하는 노동력 수요와 기존의 양 목축에서 보다 비노동집약적인 기타 작물재배로 농업 인력이 이전하는 경향이 반영된 결과이다.

농업 관련 식품산업(식품, 음료, 담배 등)의 2009년 부가가치는 217억 호주달러(전체 제조업 부가가치의 19%)에 이르고, 22만 7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가장 큰 제조업 분야이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9년 식품(주류 포함)에 대한 지출은 1,257억 호주달러로 매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슈퍼나 식료품점을 통한 식품구입이 전체 지출액의 64%를 차지하며, 외식업체를 통한 지출도 13%에 이르고 있다.

그림 1 호주의 분야별 농업생산액 및 농업고용 추이



자료: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1) 곡물

호주에서 밀, 보리, 귀리, 라이밀은 목초지와 교대로 재배되는 겨울작물이고, 사탕수수, 옥수수, 쌀은 여름작물로 종종 겨울작물과 교대로 재배된다. 이밖에도 호주에서 많이 재배되는 겨울작물은 카놀라와 콩이다.

밀은 호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곡물로 중부 퀸즈랜드, 뉴사우스웨일스, 빅토리아, 남부 호주까지 이어지는 밀 벨트(wheat belt) 지역이 주산지이다. 2009년 호주의 밀 생산량은 2천 2백만 톤이었다.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05년에는 2천 5백만 톤이 생산되었으나 가뭄이 심했던 2002년, 2006년, 2007년에는 생산량이 절반 이상 하락한 1천만 톤 가까이 감소하기도 하였다. 생산량 중에서 매년 7백만 톤가량이 식용, 산업용(바이오 연료), 사료, 종자 등의 용도로 국내에서 소비되며, 나머지는

호주는 매년 7백만~1천 5백만 톤의 밀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5대 밀 수출국이다.

수출하고 있다. 따라서 호주는 작황에 따라 매년 7백만 톤~1천 5백만 톤의 밀을 세계시장에 공급하는 5대 밀 수출국이다¹⁰⁾.

밀 다음으로 많이 생산되는 곡물은 보리로 2009년 생산량은 8백만 톤에 이른다. 국내에서 보리는 주로 가축사료로 이용되며, 생산량의 2/3 정도가 사료 또는 맥아 상태로 수출되고 있다. 이밖에도 사료작물로 재배되는 수수와 귀리의 생산량이 1백만 톤 이상이며, 라이밀, 옥수수, 콩(루핀, 완두, 이집트콩, 강낭콩 등)이 일정 규모로 생산되고 있다. 밀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곡물의 생산량은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가뭄 피해가 컸던 2006년의 경우 모든 작물의 생산량이 급감한 바 있다.

호주의 쌀 재배면적은 2000년에 14만 ha까지 확대된 이후 호주대륙의 자연환경 악화와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때문에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2009년 쌀 생산량은 20만 톤에 불과하며, 한 때는 60만 톤 규모까지 도달했던 수출 또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¹¹⁾.

표 4 호주의 곡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밀	생산량	22,108	25,173	10,822	13,569	21,420	21,656
	국내이용	-	6,623	7,416	6,511	7,294	5,109
	순수출	-	15,969	8,685	7,444	14,707	14,754
	재고변화	-	2,558	-5,279	-386	-581	2,060
쌀	생산량	1,101	973	163	190	65	206
	수입량	48	96	115	176	-	-
	수출량	637	320	192	48	-	-
보리	생산량	6,743	9,483	4,257	7,160	7,997	8,098
	수입량	0	0	0	0	0	0
	수출량	2,956	3,928	4,799	1,840	3,485	4,468
옥수수	생산량	406	380	240	387	376	328
	수입량	0	1	1	0	0	0
	수출량	47	4	1	22	92	36
귀리	생산량	1,050	1,688	748	1,502	1,160	1,244
	수입량	0	0	0	0	0	-
	수출량	139	135	186	30	192	217
수수	생산량	2,116	2,011	1,932	1,283	3,790	2,692

10) 2010/2011년도에 호주는 미국, EU,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다섯 번째로 큰 규모의 밀 수출량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ABARE, 2010).

11) 호주에서 생산되는 쌀의 75% 정도가 중립종이며, 생산농가의 호당 평균경작면적은 300ha 정도로 5~7년 주기의 윤작을 한다. 윤작형태는 주로 목초지 가축 방목(1~2년) → 쌀 재배(2년) → 맥류 경작 → 휴경과 같은 사이클을 지니 가축의 분뇨와 목초가 자연적으로 거름이 되고 병해충 및 잡초 방지에 도움이 되어 결과적으로 쌀 생산에 유리하다(이대섭 외, 2008). 그러나 쌀은 강수량의 영향을 많이 받는 작물이기 때문에 물 부족이 심각한 호주대륙에 적합하지 않은 작목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두	수입량	-	-	-	-	-	-
	수출량	11	62	50	21	51	998
	생산량	105	54	55	32	35	80
	수입량	1	1	1	10	1	-
	수출량	9	6	3	3	1	-
맥주보리	생산량	1,745	1,748	1,720	1,677	1,708	1,720
	수입량	33	77	76	105	46	-
	수출량	47	13	21	13	11	-
라이밀	생산량	841	676	199	450	363	545
	수입량	-	-	-	-	-	-
	수출량	-	-	-	-	-	-

주: 생산량(2000-09), 수출입량(2000-08)은 FAO STAT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수출입자료는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표 5 호주의 기타 작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사탕수수	생산량	38,165	37,822	37,128	36,397	32,621	31,457
	수입량	0	-	-	-	-	-
	수출량	0	-	-	-	-	-
당밀	생산량	2,116	2,011	1,932	1,283	3,790	2,692
	수입량	-	-	-	-	-	-
	수출량	11	62	50	21	51	998
카놀라	생산량	1,775	1,436	573	1,214	1,844	1,910
	수입량	0	0	57	0	0	0
	수출량	1,614	843	228	472	1,067	1,211
카놀라 기름	생산량	-	229	258	237	286	308
	수입량	-	0	0	0	0	0
	수출량	-	32	36	68	67	96
루핀	생산량	1,055	1,285	470	662	708	823
	수입량	0	0	0	0	0	0
	수출량	365	494	93	77	304	230
목화씨	생산량	1,787	1,557	1,464	721	304	802
	수입량	-	-	-	-	-	-
	수출량	-	-	-	-	-	-

주: 생산량(2000-09), 수출입량(2000-08)은 FAO STAT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수출입자료는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열대기후인 퀸즈랜드 북부를 중심으로 매년 3천만 톤 이상의 사탕수수를 생산하고 있는 호주는 브라질과 태국에 이어 세계 3위의 설탕 생산국이다. 호주는 매년 360만 톤 이상의 설탕을 생산하고 있다¹²⁾. 호주에서는 사탕수수로 원당과 바이오

12) 호주의 최대 사탕수수 경작지인 퀸즈랜드 북부가 올해 초 사상 최악의 사이클론인 '야시(Yasi)'

2009년 바이오 연료 생산량은 3.3억 리터로 추산되며, 2015년까지 6억 리터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탄올을 함께 만들고 있다.

호주는 식량작물과 사탕수수 외에도 유지작물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 가장 많이 생산되고 있는 유지작물은 카놀라와 목화씨(면실)로 2009년에 각각 190만 톤과 50만 톤을 생산하였다. 카놀라는 400m³/1ha 정도의 낮은 강수량에도 견딜 수 있으며, 식물성 식용유, 가축사료, 및 바이오디젤(bio-diesel)의 주원료로 사용되고 있다¹³⁾.

호주는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석탄연료 사용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대안 중의 하나로 바이오 연료(바이오디젤, 에탄올)를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2009년 호주의 바이오 연료 생산량은 3.3억 리터¹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2015년까지 두 배 이상인 6억 리터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리터당 평균판매가격이 80센트라고 가정하면, 호주의 2009년 바이오 연료 생산액은 2.6억 호주달러로 추정된다. 사탕수수는 에탄올의 주원료이며, 밀, 수수와 같은 곡물들도 에탄올의 원료로 사용된다. 반면, 유지작물인 카놀라, 면실, 대두, 해바라기 등이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되며, 동물성 지방이나 폐식용유 등도 원료로 사용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곡물 생산량의 급변으로 인해 바이오 연료의 주원료인 곡물의 세계가격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절감, 국제유가의 상승 등의 여러 요인들로 인해, 주요 곡물 생산국들의 식량생산과 바이오 연료 생산에 대한 의사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원예

1995년부터 10년 동안 호주의 원예산업은 국내 소비자의 수요 증가와 함께 생산액 기준으로 60% 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5년 동안 계속되는 가뭄과 기상재해로 인해 원예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

채소류 중에서는 감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가장 많다. 감자는 전체 채소 재배면적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18만 톤을 생산하였다. 호주 남부의 타스마니아와 빅토리아가 감자 생산량의 75%를 담당하는 주산지로서 12월~3월이 수확시기이다. 2009년에 44만 톤이 생산된 토마토는 채소류 중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작물이다.

이밖에도 양파(28만 톤), 당근(26만 톤), 양상추(16만 톤), 호박(10만 톤) 등이 매년 10만 톤 이상 생산되고 있는 채소들이다. 대부분의 채소는 시장접근성이 높은 대도시 근교의 관개지에서 재배되고 있지만, 가뭄에 의한 물 부족이 심한 해에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생산량이 급감하기도 한다.

로 인한 큰 피해를 입으면서 올해 뿐 아니라 내년까지도 전세계의 설탕공급 부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3) 카놀라 열매 2톤으로 바이오디젤 5배럴을 생산할 수 있다. 보통 바이오디젤 생산플랜트는 10만 톤(또는 2000배럴)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14) 이는 2009년 호주의 휘발유와 디젤 소비량인 370억 리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최근 계속되는 가뭄과 기상재해로 인해 원예작물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정체되어 있거나 감소하고 있다.

호주에서 생산되는 과일은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파파야와 같은 열대과일에서부터 포도, 오렌지, 감귤, 사과, 배, 복숭아, 수박 등 아열대 및 온대과일까지 매우 다양하다.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과일은 포도로 2009년에 180만 톤을 생산하였는데 전체 포도생산의 90%가 와인 생산에 이용되고 있다. 와인포도 재배면적은 2005년에 15만7천 ha로 가장 커진 이후 가뭄으로 인한 생산환경의 악화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포도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2005년의 와인 생산량은 14억 3천 리터로 가장 많았으며, 절반 이상이 EU와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다. 2009년의 와인 생산량은 11억 8천 리터, 수출량은 7억 5천 리터를 기록하였다.

호주 과일 중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오렌지는 2009년에 35만 톤이 생산되었다. 신선 오렌지는 매년 10만 톤 이상 순수출하고 있는 반면, 오렌지 주스는 3만 톤가량을 순수입하고 있다. 남반구에 위치한 호주는 대부분의 과일 교역에서 북반구의 국가들과 계절성이 두드러지는 교역 패턴을 보이고 있다. 호주와 미국의 오렌지 수출입 통계를 보면, 호주의 여름시기인 10월~2월에는 호주에서 미국으로 전량이 수출되는 반면, 호주의 겨울시기에는 미국에서 오렌지를 수입하고 있다¹⁵⁾.

이밖에도 2009년에는 사과가 30만 톤, 바나나가 27만 톤¹⁶⁾, 멜론이 21만 톤 생산되었으며, 파인애플, 배, 감귤, 복숭아, 수박 등이 10만 톤 이상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오렌지와 마찬가지로 사과, 배, 포도, 열대과일 등도 북반구와 정반대인 계절적인 특성 아래 아시아와 중동으로 수출되고 있다. 다만, 이들 신선 과일은 검역상의 이유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고 있다.

표 6 호주의 채소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토마토	생산량	-	408	450	296	382	440
	신선수출	-	4	4	4	5	3
	가공수출	-	9	9	7	7	7
	가공수입	-	27	26	34	49	48
양배추	생산량	69	78	79	82	72	78
	수입량	0	0	-	0	-	-
	수출량	8	4	3	1	1	-
양파	생산량	247	256	222	246	254	284
	수입량	5	5	8	10	11	-
	수출량	42	54	46	50	47	-
양상치/	생산량	116	124	77	70	64	70

15) 아스파라거스와 같은 수출 채소류도 비슷한 계절적 무역 패턴을 보이고 있다.

16) 올해 초 퀸즐랜드 북부를 강타한 야시(Yasi)는 사탕수수 재배지역 뿐만 아니라, 호주 전체 생산량의 85%를 담당하고 있는 바나나 재배지역에도 큰 피해를 입혔다. 따라서 공급부족에 따른 바나나의 국제가격 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브로콜리	수입량	-	0	-	0	-	-
	수출량	27	6	5	2	2	-
당근/순무	생산량	283	316	265	271	273	264
	수입량	1	0	-	0	0	-
양상추	수출량	59	58	67	55	57	-
	생산량	152	132	163	271	169	165
호박	수입량	0	0	-	0	-	-
	수출량	4	1	1	1	1	-
감자	생산량	124	90	111	103	114	104
	수입량	-	-	-	-	-	-
감자	수출량	-	-	-	-	-	-
	생산량	1,200	1,288	1,250	1,212	1,400	1,179
감자	수입량	0	0	0	0	0	-
	수출량	31	50	35	26	16	-

주: 생산량(2000-09), 수출입량(2000-08)은 FAO STAT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수출입자료는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표 7 호주의 과일 수급 현황

단위: 천 톤, 백만 리터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포도 (백만 리터)	생산량	1,311	2,027	1,981	1,530	1,957	1,797
	수입량	-	5	5	12	16	-
	수출량	33	50	48	40	41	31
와인	생산량	806	1,434	1,430	962	1,245	1,178
	수입량	16	26	31	44	66	54
	수출량	311	695	762	781	701	749
망고, 구아바, 망고스틴	생산량	38	50	36	58	58	60
	수입량	-	-	-	-	-	-
	수출량	-	-	-	-	-	-
오렌지	생산량	510	498	507	471	409	348
	수입량	14	13	13	10	16	19
	수출량	137	131	128	128	106	127
바나나	생산량	257	266	187	213	207	270
	수입량	0	0	0	1	0	-
	수출량	0	0	0	0	0	-
파인애플	생산량	139	104	153	165	162	158
	수입량	1	1	1	1	0	-
	수출량	0	0	0	0	0	-
수박	생산량	85	108	134	137	152	131
	수입량	-	-	-	-	-	-
	수출량	1	2	2	2	3	-
사과	생산량	320	327	276	270	265	295
	수입량	0	0	0	-	0	-
	수출량	37	13	8	5	4	-

배	생산량	156	151	139	135	130	120
	수입량	1	4	3	4	2	-
	수출량	21	9	7	3	6	-
멜론	생산량	85	108	134	137	152	131
	수입량	-	-	-	-	-	-
	수출량	1	2	2	2	3	-
복숭아	생산량	112	130	140	131	128	117
	수입량	0	0	0	0	0	-
	수출량	7	7	8	5	6	-
감귤	생산량	85	88	92	104	94	90
	수입량	1	0	1	1	1	-
	수출량	27	23	18	19	22	-

주: 생산량(2000-09), 수출입량(2000-08)은 FAO STAT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수출입자료는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3) 축산

호주는 광범위한 초지를 바탕으로 쇠고기 생산에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소 사육두수는 2009년에 2,781만 두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5~7% 정도는 젖소이며, 나머지는 육우이다. 소 사육은 호주 전역에서 이루어지나 젖소 농장은 주로 남부와 해안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육우는 퀸즈랜드와 뉴사우스웨일스에 집중되어 있다¹⁷⁾.

호주의 한 해 육우 도축두수는 800~900만 두에 달하며, 매년 쇠고기 생산량은 200만 톤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쇠고기 생산량의 3% 수준이다. 또한 자국 쇠고기의 2/3를 수출함으로써 국제시장에서 중요한 공급자의 위치에 있다.

양의 사육두수는 1970년에 1억 8천만 두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1990년 이후 양모 시장의 불안정과 호주 전역에서 발생된 거둬들인 가뭄으로 인해 양 사육두수가 급격히 하락한 결과 2009년도에는 양 사육두수가 7천만 두를 기록하였다. 양고기의 생산도 정체 또는 감소하는 추세로 2009년에 양고기(Mutton)는 22만 톤, 어린 양고기(Lamb)는 42만 톤을 생산하였다.

호주에서 돼지는 집약적으로 사육되고 있다. 2005년 270만 두의 사육두수는 조금씩 줄어들어 2009년에 230만 두까지 감소하였는데, 가뭄과 홍수 등으로 인한 사료곡물의 가격상승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호주의 양돈산업은 소규모 생산자들이 이탈하면서 기존 생산자들은 규모화를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사육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생산기술을 통해 돼지고기 생산량은 매년 30~40만 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호주에서 닭은 돼지와 마찬가지로 한 곳에 가두어 집약적으로 사육하며, 육계의

호주의 한 해 육우도 축 두 수는 800~900만 두로 매년 쇠고기 생산량은 200만 톤을 상회하고 있다.

17) 소는 양, 낙농, 작물 등과 결합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북부 지역은 목초지의 개간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료곡물이 거의 생산되지 않아 젖소보다 육우를 주로 사육하고 있다.

사육 비중 80%로 산란계보다 높다. 2009년의 닭 사육마리 수는 9,540만 마리로 2000년에 비해 12% 가량 증가하였으며, 닭고기 생산량은 83만 톤으로 2000년 대비 36% 증가하였다¹⁸⁾.

낙농업의 2009년 생산액은 약 34억 호주달러로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10%를 차지한다. 호주는 낙농에 유리한 기후 조건을 갖추었을 뿐 만 아니라 사료의 75%가 목초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고품질의 원유생산이 가능하여 낙농업에 높은 경쟁력을 지니고 있다. 또한 호주는 세계 우유생산의 약 2%를 생산하지만, 세계 낙농품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3%로 EU와 뉴질랜드에 이어 세 번째 낙농품 수출국이다.

호주의 젖소 사육두수는 1995년에 188만 두에서 2000년에 218만 두로 최고치에 이른 다음에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9년에는 155만 두를 기록하였다. 사육두수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젖소 한 마리당 우유 생산은 1995년의 4,627리터에서 2009년도에 5,810리터로 크게 증가하였기 때문에 우유 생산량은 급격하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2009년에는 90억 리터를 기록하였다¹⁹⁾. 2001년 이후 호주의 우유 생산이 감소한 원인은 자연조건의 악화와 우유 산업의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 때문이다. 2006~2007년의 경우 가뭄으로 인해 목초지가 감소하였으며, 사료작물의 공급이 제한되어 우유 생산량이 하락하였다.

원유 생산량의 감소로 인해 낙농품의 생산량과 수출량도 감소하는 추세이다. 모든 낙농품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2009년에 13만 톤이 생산된 버터는 7만 톤 이상이 수출되었으며, 35만 톤이 생산된 치즈는 17만 톤이 수출되었다. 전지분유와 탈지분유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70%로 매우 높다.

표 8 호주의 가축 사육두수 및 축산물 수급 현황

단위: 천 두수, 천 톤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쇠고기	사육두수	27,588	27,782	28,393	28,037	27,321	27,907
	생산량	1,988	2,162	2,077	2,226	2,155	2,148
	수입량	1	5	4	2	2	-
	수출량	930	977	1,007	992	994	1,376
양고기	사육두수	118,552	101,125	91,028	85,711	79,938	72,740
	생산량	680	595	626	684	694	658
	수입량	0	0	1	0	1	-

18) 2005년에는 닭 사육마리 수가 7,590만 마리로 가장 작았는데, 이는 2000년도에 비해 9%가 감소한 것이다. 이는 국제곡물 가격의 상승과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하여 육계 사육이 위축된 것인데, 2000년대 후반부터 양계산업의 계열화가 진전되고 닭고기 수출물량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19) 이는 1995년도 생산량보다 높은 수치이나, 가장 생산량이 많았던 2000~2001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한 것이다.

	수출량	300	293	321	321	316	184
돼지고기	사육두수	2,511	2,708	2,733	2,605	2,411	2,302
	생산량	364	391	386	382	377	324
	수입량	34	47	45	57	51	257
	수출량	39	42	45	41	36	49
닭고기	사육두수	84,928	75,903	94,384	97,386	88,629	95,409
	생산량	610	760	773	812	802	832
	수입량	-	-	0	0	-	-
	수출량	14	17	16	25	27	45
천연꿀	생산량	21	15	18	18	17	17
	수입량	0	1	1	2	5	-
	수출량	9	7	9	6	7	-
우유	생산량	10,847	10,127	10,089	9,583	9,223	9,388
	수입량	3	2	1	1	1	-
	수출량	68	56	53	51	46	72

주: 생산량(2000-09), 수출입량(2000-08)은 FAO STAT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2009년도 수출입자료는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표 9 호주의 젖소 사육 및 낙농품 생산현황

단위: 천 톤

연도	젖소 사육 두수 (천두)	젖소 마리당 우유 생산량 (L)	생산량								
			우유 (백만L)	버터	치즈	비체더	체더	전지분유	탈지분유	카세인	버터밀크분유
1995	1,884	4,627	8,718	154	268	-	-	-	-	-	-
2000	2,176	4,847	10,547	172	376	161	215	205	244	8	16
2001	2,123	5,309	11,271	178	412	192	220	239	239	14	18
2002	2,050	5,038	10,328	164	379	166	213	198	197	13	17
2003	2,038	4,944	10,076	149	384	176	208	187	182	14	17
2004	1,942	5,215	10,127	147	388	193	196	189	189	13	17
2005	1,880	5,367	10,089	146	373	181	192	158	205	12	16
2006	1,796	5,336	9,583	133	364	185	179	135	191	8	14
2007	1,640	5,624	9,223	128	361	190	171	142	164	10	13
2008	1,676	5,602	9,388	148	342	165	177	148	212	10	15
2009	1,553	5,810	9,023	128	349	186	163	126	190	8	13

주: 이대섭 외(2008)가 제시한 동일한 표에 최근 공표된 통계를 추가하였다.

자료: Australia commodity statistics(2010).

표 10 낙농품 수출량 추이

단위: 천 톤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버터	83.6	69.5	82.5	80.7	57.4	70.4	73.7
치즈	212.1	227.7	201.9	212.6	203.3	146.4	168.3
전지분유	117.1	104.8	110.3	94.4	81.6	116.3	91.2
탈지분유	155.7	140.8	181.2	164.5	123.0	162.3	126.2
카세인	18.2	12.8	8.3	11.7	9.0	7.6	9.6
기타(농축우유)	170.9	171.5	163.5	144.7	121.6	132.8	103.9

자료: ABS, International Trade, Australia(2010).

2) 농산물 교역

호주는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호주의 축산·낙농·원예 등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국제시장에서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케언즈 그룹(Gairns Group)을 주도하는 국가로써 WTO 등의 국제기구에서 농산물의 무역자유화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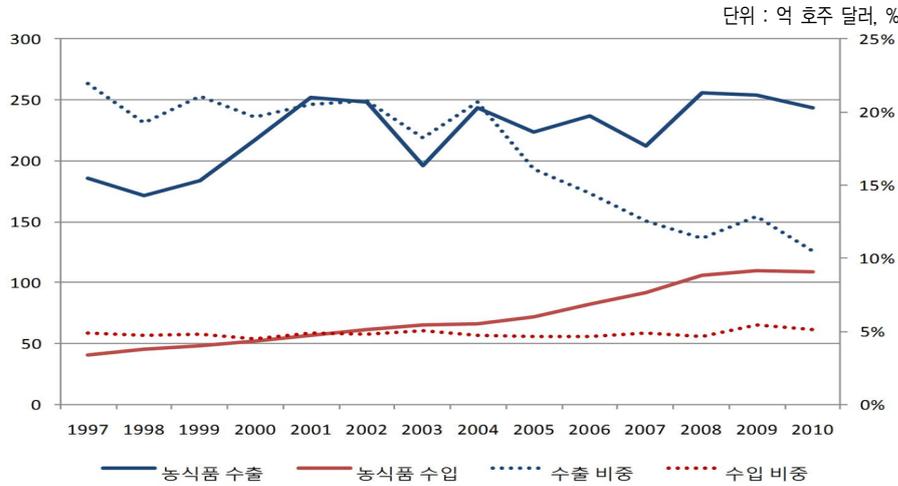
1980년대부터 국제적인 무역자유화 추세에 대응하여 전반적인 시장개방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호주의 농산물 수입관세는 매우 낮은 수준(5% 이하)이다.

호주는 큰 폭의 농식품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농식품 교역수지를 보면 가장 흑자 규모가 작았을 때는 2007년으로 119억 호주달러를 기록한 반면, 가장 흑자 규모가 컸을 때는 194억 호주달러를 기록한 2001년이다. 호주의 농식품 교역수지의 변동 역시 가뭄과 같은 호주대륙의 자연재해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2010년에 농식품 수출액은 245억 호주달러로 전체 상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이다. 최근 5년 동안 천연자원과 연료의 수출이 급증하면서 20% 수준이었던 농식품 수출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같은 해 농식품 수입액은 109억 호주달러이며, 전체 상품 수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2%로 지난 15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호주의 주요 농산물은 생산량의 70% 이상이 수출되고 있다. 지난 20년간 쇠고기, 낙농품, 와인의 수출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밀과 설탕도 전체 농식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이 수출되고 있다.

그림 2 호주의 농식품 수출입 추이



자료: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RS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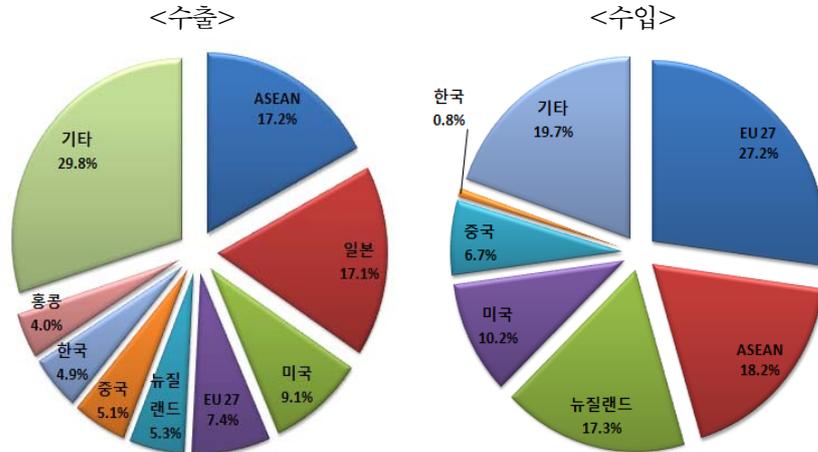
호주의 농식품 수입은 주로 가공식품에 집중되어 있다. 가공처리된 과일이나 채소, 음료, 시리얼, 빵 등이 주로 수입되며, 주요 수출품목인 와인, 육류, 낙농품도 상당한 규모로 수입되고 있다.

호주의 농식품 교역대상국을 살펴보면, 1990년대 후반부터 주요 교역국이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뀌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2008-2010) 동안 농식품 평균 수출입액을 기준으로 볼 때 호주의 주요 수출대상국은 ASEAN, 일본, 미국, EU, 뉴질랜드, 중국, 한국, 홍콩 등이다. 호주에게 우리나라는 단일국가로는 5번째로 큰 수출대상국이다. 호주산 농식품의 ASEAN으로의 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호주가 뉴질랜드와 함께 체결한 ASEAN과의 FTA(AANZFTA)가 2010년 초에 발효되면서 ASEAN으로의 수출비중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에게 뉴질랜드는 가까운 거리로 인해 전통적으로 가장 큰 규모의 농산물 수입대상국이다. 최근 3년을 기준으로 EU와 ASEAN이 차지하는 농식품 수입비중은 각각 27.2%와 18.2%로 매우 높다. 미국과 중국의 수입비중도 각각 10.2%와 6.7%를 기록하였다. ASEAN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뉴질랜드, EU, 미국으로 부터의 수입비중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호주의 농식품 수입에서 차지하는 한국산 농식품의 비중은 0.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호주의 농식품 교역대상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유럽에서 아시아로 바뀌는 추세이다.

그림 3 호주의 농식품 교역 대상국 (2008-2010 평균 농식품 수출입액 기준)



자료: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RS database.

주요 수출 품목은 쇠고기, 밀, 와인, 양모, 설탕, 양고기, 보리, 치즈 등이다.

2006~2008년 평균 수출액을 기준으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품목은 쇠고기, 밀, 와인, 양모, 설탕, 양고기, 보리, 치즈 등이다. 동 기간 평균 쇠고기 수출은 100만 톤으로 생산량의 46.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수출액은 39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의 비중이 17.5%에 달했다. 호주의 쇠고기 수출시장은 일본, 미국, 한국으로 삼국의 비중이 90%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다¹⁹⁾. 이는 2003년에 발생한 미국의 BSE 때문에 대미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었던 일본과 한국시장에서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한 결과이다. 일본과 한국으로 수출하는 쇠고기는 품질과 가격이 높지만 미국으로 수출하는 호주산 쇠고기는 품질이 상대적으로 낮아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밀은 연간 1,264만 톤이 수출되었으며, 평균 수출액은 32억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에서의 비중이 14.5%이다. ASEAN, 중동, 일본, 중국, 한국 등이 호주산 밀의 주요 수입국이다. 포도주는 연간 4억 3천 리터를 국내에서 소비하고 7억 5천 리터를 수출하고 있다.

포도주 수출액은 연간 22억 4천 달러로 전체 농식품 수출의 10%를 담당하고 있다. 호주산 포도주의 주요 수입국은 영국과 미국으로 총 포도주 수출의 30%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캐나다도 호주산 포도주 수출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19) 2009년 호주의 쇠고기 수출량은 92만 톤이며, 일본, 미국,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각각 36만 톤, 25만 톤, 12만 톤을 기록하였다. 한국으로의 수출량은 2006년에 15만 톤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이후부터는 호주산 쇠고기의 수입량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호주의 설탕 생산량은 연간 450~500만 톤 수준이며, 350만 톤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호주산 설탕의 주요 수입국은 한국,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대만 등이다²⁰⁾.

호주는 세계 최대의 양모생산국으로 세계 총생산량의 1/4을 차지한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세계 양모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호주 또한 양모 생산량이 1990년도 99만 톤, 2000년도 65만 톤, 2009년도 38만 톤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동 기간 양모 수출액이 전체 농산물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이며, 호주산 양모의 주요 수입국은 중국과 EU이다. 중국으로의 수출은 증가하는 반면, EU으로의 수출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호주의 양고기 수출량은 32만 톤으로 생산량의 57%를 차지한다. 양고기의 경우 80% 이상을 수출하는 반면, 어린 양고기의 경우 수출 비중은 50%에 미치지 못 한다. 호주산 양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EU,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2006~2008년 평균 수입액을 기준으로 호주가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는 품목은 음료(알코올첨가), 와인, 돼지고기, 치즈, 패스트리, 초콜렛 등이다. EU는 호주의 와인 수입량의 40%, 음료 수입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돼지고기와 올리브 오일도 많은 양을 EU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뉴질랜드로부터는 치즈를 비롯한 낙농품, 와인, 키위, 기타 가공식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ASEAN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식품은 과일 조제품, 커피, 팜유, 쌀, 냉동채소, 캐슈넛 등이다.

주요 수입 품목은 음료, 와인, 돼지고기, 치즈, 패스트리, 초콜렛 등이다.

표 11 호주의 농축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톤, \$/kg

		2000	2006	2007	2008	06-08	
						평균	금액 비중
쇠고기	수출액	2,081,179	3,662,031	3,763,728	4,248,865	3,891,541	17.5
	수출량	929,797	1,007,101	991,945	994,408	997,818	
	단가	2.24	3.64	3.79	4.27	3.90	
밀	수출액	2,219,500	2,540,670	3,887,830	3,240,620	3,223,040	14.5
	수출량	17,724,400	14,975,500	14,684,200	8,278,010	12,645,903	
	단가	0.13	0.17	0.26	0.39	0.25	
와인 (천리터, \$/l)	수출액	903,594	2,082,610	2,488,460	2,146,060	2,239,043	10.0
	수출량	310,885	762,278	781,419	701,050	748,249	
	단가	2.91	2.73	3.18	3.06	2.99	
양모	수출액	1,225,100	1,489,770	1,971,600	1,665,020	1,708,797	7.7
	수출량	485,313	385,670	375,154	324,210	361,678	
	단가	2.52	3.86	5.26	5.14	4.72	
설탕	수출액	760,000	1,509,720	1,005,989	1,337,648	1,284,316	5.5
	수출량	3,615,000	3,719,510	3,493,430	3,268,049	3,493,663	

20) 우리나라는 호주로부터 매년 100만 톤 가량의 설탕을 수입하고 있는 호주산 설탕의 최대 시장이다.

	단가	0.21	0.33	0.26	0.48	0.30	
양고기	수출액	479,903	969,503	1,049,350	1,128,820	1,049,224	4.7
	수출량	300,123	320,746	320,978	315,783	319,169	
	단가	1.60	3.02	3.27	3.57	3.29	
보리	수출액	389,939	698,931	451,357	1,071,780	740,689	3.3
	수출량	2,956,220	4,799,490	1,840,140	3,485,080	3,374,903	
	단가	0.13	0.15	0.25	0.31	0.22	
치즈	수출액	529,316	630,559	744,778	773,333	716,223	3.2
	수출량	232,735	209,548	217,219	157,931	194,899	
	단가	2.27	3.01	3.43	4.90	3.67	
린트면	수출액	891,832	763,673	466,414	383,846	537,978	2.4
	수출량	711,395	578,110	327,599	225,566	377,092	
	단가	1.25	1.32	1.42	1.70	1.43	
우유 (건조)	수출액	371,840	383,236	407,178	600,542	463,652	2.1
	수출량	203,915	168,655	116,107	140,887	141,883	
	단가	1.82	2.27	3.51	4.26	3.27	
우유 (탈지건조)	수출액	349,958	397,982	449,113	437,259	428,118	1.9
	수출량	219,267	184,486	133,689	125,582	147,919	
	단가	1.60	2.16	3.36	3.48	2.89	
식용설육(쇠 고기)	수출액	145,026	339,314	356,471	393,411	363,065	1.6
	수출량	84,380	116,071	118,144	122,498	118,904	
	단가	1.72	2.92	3.02	3.21	3.05	
목초	수출액	269,546	236,054	186,921	419,673	280,883	1.3
	수출량	2,329,950	1,181,310	689,428	1,444,420	1,105,053	
	단가	0.12	0.20	0.27	0.29	0.25	
음식물 기타	수출액	156,409	249,490	270,278	296,325	272,031	1.2
	수출량	67,462	94,803	98,336	93,983	95,707	
	단가	2.32	2.63	2.75	3.15	2.84	
면양가죽	수출액	124,123	239,057	280,937	282,378	267,457	1.2
	수출량	147,426	117,282	114,301	97,222	109,602	
	단가	0.84	2.04	2.46	2.90	2.44	
맥아	수출액	112,778	170,465	232,053	340,092	247,537	1.1
	수출량	464,804	577,296	590,862	553,004	573,721	
	단가	0.24	0.30	0.39	0.61	0.43	
수지	수출액	101,007	142,731	215,692	318,833	225,752	1.0
	수출량	384,099	365,202	361,856	372,532	366,530	
	단가	0.26	0.39	0.60	0.86	0.62	
사료 (애완용)	수출액	177,356	239,787	209,118	228,319	225,741	1.0
	수출량	249,136	227,457	175,217	158,218	186,964	
	단가	0.71	1.05	1.19	1.44	1.21	
유채씨	수출액	318,094	215,374	85,539	295,041	198,651	0.9
	수출량	1,613,930	763,601	210,122	530,237	501,320	
	단가	0.20	0.28	0.41	0.56	0.40	
버터	수출액	169,032	149,419	157,931	176,652	161,334	0.7
	수출량	114,849	78,355	65,433	47,515	63,768	
	단가	1.47	1.91	2.41	3.72	2.53	
초콜릿 (기타)	수출액	111,320	115,983	158,937	172,547	149,156	0.7
	수출량	38,573	27,475	32,289	30,722	30,162	
	단가	2.89	4.22	4.92	5.62	4.95	
병아리콩	수출액	88,639	130,442	94,322	145,450	123,405	0.6

돼지고기	수출량	307,293	267,674	159,584	271,548	232,935	0.5
	단가	0.29	0.49	0.59	0.54	0.53	
	수출액	93,187	113,683	115,295	104,651	111,210	
	수출량	39,007	44,853	40,550	35,580	40,328	
오렌지	단가	2.39	2.53	2.84	2.94	2.76	0.5
	수출액	80,680	100,306	125,924	102,711	109,647	
	수출량	136,825	127,536	128,322	106,485	120,781	
	단가	0.59	0.79	0.98	0.96	0.91	
페스트리	수출액	47,202	96,877	112,902	111,667	107,149	0.5
	수출량	24,147	30,070	32,340	29,221	30,544	
	단가	1.95	3.22	3.49	3.82	3.51	
쌀	수출액	204,596	146,885	108,439	46,038	100,454	0.5
	수출량	539,334	285,603	171,777	41,298	166,226	
	단가	0.38	0.51	0.63	1.11	0.60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표 12 호주의 농축산물 수입 현황

단위: 천달러, 톤, \$/kg

		2000	2006	2007	2008	06-08	
						평균	금액 비중
음식물 (기타)	수입액	471,658	825,788	1,053,940	1,079,360	986,363	13.8
	수입량	109,534	217,162	215,405	249,743	227,437	
	단가	4.31	3.80	4.89	4.32	4.34	
음료수 (알코올첨가)	수입액	213,888	352,109	399,274	429,647	393,677	5.5
	수입량	25,587	31,742	33,105	32,104	32,317	
	단가	8.36	11.09	12.06	13.38	12.18	
와인	수입액	66,765	223,744	339,892	453,223	338,953	4.7
	수입량	15,639	30,567	43,891	65,629	46,696	
	단가	4.27	7.32	7.74	6.91	7.26	
돼지고기	수입액	79,599	237,543	365,895	358,132	320,523	4.5
	수입량	34,013	81,433	106,089	113,167	100,230	
	단가	2.34	2.92	3.45	3.16	3.20	
치즈	수입액	105,271	203,572	247,392	329,404	260,123	3.6
	수입량	38,819	56,393	57,564	61,375	58,444	
	단가	2.71	3.61	4.30	5.37	4.45	
페스트리	수입액	112,162	203,556	272,897	278,217	251,557	3.5
	수입량	44,649	83,017	91,061	92,896	88,991	
	단가	2.51	2.45	3.00	2.99	2.83	
초콜렛	수입액	83,806	161,723	240,490	291,640	231,284	3.2
	수입량	22,351	35,472	43,615	50,933	43,340	
	단가	3.75	4.56	5.51	5.73	5.34	
맥주보리	수입액	35,329	172,509	306,122	159,231	212,621	3.0
	수입량	33,001	75,966	105,106	45,577	75,550	
	단가	1.07	2.27	2.91	3.49	2.81	
대두박	수입액	6,133	64,195	208,077	188,737	153,670	2.1
	수입량	26,001	294,654	686,189	505,766	495,536	
	단가	0.24	0.22	0.30	0.37	0.31	
올리브 오일	수입액	66,563	157,829	187,860	104,524	150,071	2.1

	수입량	27,000	33,779	42,835	23,657	33,424	
	단가	2.47	4.67	4.39	4.42	4.49	
	수입액	35,020	98,077	158,977	172,150	143,068	
음료수 (알코올무첨가)	수입량	28,858	77,408	98,670	105,569	93,882	2.0
	단가	1.21	1.27	1.61	1.63	1.52	
	수입액	66,694	118,444	149,864	160,245	142,851	
과일 (조제가공)	수입량	43,907	88,967	82,086	80,261	83,771	2.0
	단가	1.52	1.33	1.83	2.00	1.71	
	수입액	75,662	100,640	130,895	156,733	129,423	
커피 (안볶은것)	수입량	32,427	51,259	54,262	54,797	53,439	1.8
	단가	2.33	1.96	2.41	2.86	2.42	
	수입액	36,531	99,146	136,591	146,803	127,513	
애완용 사료	수입량	30,283	60,331	69,208	71,385	66,975	1.8
	단가	1.21	1.64	1.97	2.06	1.90	
	수입액	57,305	104,472	133,978	129,727	122,726	
설탕과자	수입량	19,559	32,130	33,387	34,528	33,348	1.7
	단가	2.93	3.25	4.01	3.76	3.68	
	수입액	43,819	82,358	101,267	114,417	99,347	
커피 추출액	수입량	4,840	10,045	9,207	9,696	9,649	1.4
	단가	9.05	8.20	11.00	11.80	10.30	
	수입액	26,408	53,054	81,117	158,963	97,711	
쌀	수입량	46,848	95,520	114,945	175,269	128,578	1.4
	단가	0.56	0.56	0.71	0.91	0.76	
	수입액	44,248	57,652	87,900	130,864	92,139	
팜유	수입량	110,504	136,528	128,335	133,976	132,946	1.3
	단가	0.40	0.42	0.68	0.98	0.69	
	수입액	55,371	70,845	85,319	91,505	82,556	
차	수입량	16,490	13,386	13,875	14,448	13,903	1.2
	단가	3.36	5.29	6.15	6.33	5.94	
	수입액	48,267	73,064	74,743	92,704	80,170	
코코아 버터	수입량	20,590	19,172	15,845	14,970	16,662	1.1
	단가	2.34	3.81	4.72	6.19	4.81	
	수입액	33,167	51,210	77,429	107,199	78,613	
마카로니	수입량	32,377	42,042	49,914	58,528	50,161	1.1
	단가	1.02	1.22	1.55	1.83	1.57	
	수입액	31,515	63,902	79,896	79,662	74,487	
채소 (조제가공)	수입량	29,405	55,224	58,103	60,072	57,800	1.0
	단가	1.07	1.16	1.38	1.33	1.29	
	수입액	46,093	81,829	87,863	52,871	74,188	
담배 (미가공)	수입량	11,783	19,921	21,122	13,544	18,196	1.0
	단가	3.91	4.11	4.16	3.90	4.08	
	수입액	24,510	50,108	86,156	84,819	73,694	
냉동채소	수입량	33,061	50,837	70,857	77,992	66,562	1.0
	단가	0.74	0.99	1.22	1.09	1.11	
	수입액	26,717	60,695	65,444	87,536	71,225	
캐슈넛 (탈각)	수입량	5,260	14,130	14,674	14,697	14,500	1.0
	단가	5.08	4.30	4.46	5.96	4.91	
	수입액	25,278	52,192	73,843	87,275	71,103	
음식물쓰레기 (사료용)	수입량	23,399	39,488	53,206	50,455	47,716	1.0
	단가	1.08	1.32	1.39	1.73	1.49	

이유식	수입액	8,491	62,147	70,967	77,724	70,279	1.0
	수입량	1,778	7,989	6,941	7,881	7,604	
	단가	4.78	7.78	10.22	9.86	9.24	

주: 이밖에도 수입비중이 0.5% 이상인 품목은, 냉동감자, 오렌지 주스, 커피(볶은 것), 사과주스, 과일주스, 올리브(조제가공) 토마토(껍질벗긴 것) 등이 있다.

자료: FAO STAT <<http://faostat.fao.org>>

참고문헌

- 이대섭 외. 2008. 『한-호주, 뉴질랜드 FTA 추진 대비 농업분야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C2008-1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6b. 『농업부문 FTA 추진전략 연구 및 DB구축』. C2006-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최세균 외. 2009. 『주요국과의 농업부문 FTA 추진현황과 전망』, P112,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림부. 『농림통계연보』. 2004, 2007, 2008, 2009, 2010
- 농수산물유통공사(www.kati.net)
-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 ABS, “International Trade”, Australia, 2010.
- DFAT(Department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STARS database(<http://www.dfat.gov.au>)
- DAFF(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Australian Food Statistics 2009-10”, 2011.
- FAO. FAOSTAT(www.fao.org).
- OECD, “Thematic reviews on risk management: Australia” TAD Working paper, 2010.
- WTO(<http://www.wto.org>)